

[아버지학교 10주년] 인터뷰 저는 졸장부 가장이었습니다

성증을 성도 가정(전주 7기)/ 2005/ 페이지수: 2

아버지학교 입교 전 조장님이 중보기도 제목을 물었을 때 ‘술 좀 끊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아버지학교 교육과정을 삼청교육대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해 “운동복 준비해가야 합니까?”라고 물어 조장님을 어리둥절하게 했던 얼빠진 문제 아버지가 저였습니다. 언제나 일을 핑계 삼아 늦게 퇴근했고 현관문을 늦게 연다, 남편이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잔다 등 괜한 생트집을 잡아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분쟁 속에서도 저희 가정이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아내의 권유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에 다니면서도 저는 여전히 사회에서 얻은 나쁜 음주습관으로 종종 아내를 피곤하게 했습니다.

전신갑주 삼은 아버지학교 유니폼

그러던 어느 아내가 아이들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셨다며 아버지학교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문제 아버지들만 입교해 정신순화 교육을 받는 곳으로 단정하고 ‘야 이 사람아 신세한탄 하는 아버지들과 만나서 술 마시고 더 망가지면 어쩌려고 그러. 그냥 현실에 만족해’하며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CBS방송국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은 후, 무언가에 끌리듯 아내에게는 좋은 남편, 아이들에게는 자상한 아버지가 되리라 결심하고 아버지학교에 입교했습니다.

첫날에는 익숙지 않은 분위기라 적응이 안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다수 아버지들이 문제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입교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교육에 임하며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아내와 아이들과 형제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회개했고 매사에 아내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음주습관을 고치고자 가끔 입고 출근하던 아버지학교 유니폼을 전신갑주삼아 매일 입고 출근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교통경찰관이 호루라기 대신 술병을 불지 못하듯 유니폼을 입고 술집에서 술을 마실 배짱이 없음을 아는 아내는 매일 제게 아버지학교 유니폼만 입고 출근하기를 강요해 처음에는 총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아이들의 밥상도 풍성해질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서인지 지금은 술을 완전히 끊은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양상한 아내 발 붙들고 드린 기도

저는 아버지학교 수료식에서 행한 세족식 때 아내의 발을 만져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의 발이 앙상한 나무토막 같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아내들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내에게 아이를 하나주셔서 제가 산후조리를 잘 해주어 아내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 나이 마흔 일곱, 아내 나이 마흔 셋.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엉뚱한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지난 4월 19일이 늦둥이 경은이 돌이었습니다. 이미 저희에게는 2남 1녀(큰 아이 스무 살, 둘째 열다섯 살, 셋째 열두 살)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성경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의 보금자리인 가정의 선한 목자로 거듭나기 위해,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버지학교 10주년 기념 가족 수기 공모전 중 -

* 출처 - 온 누 리 신 문